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현

발행인 : 신성종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4:11)

교회학교 교사·찬양대원 임명

오늘 예배시 교사 1,323명·찬양대원 997명

오늘(12월 8일) III, IV예배시에 199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한편, 각 예배 시간에 찬양대원도 함께 임명한다.

이미 보도한 바와같이 당회는 92년도에 봉사할 교회학교 교사 1,323명과 찬양대원 997명을 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서약한다.

새롭게 임명받는 교회학교 부장, 지도, 부지도, 남녀 부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송기홍 장로, 지도:안경소 목사

영아부 부장:정광호, 지도:정연희, 부감:권명옥·김경희, 유치부 부장:강모용, 지도:김정자, 부감:김영수·장영저, 초등1부 부장:김광남, 지도:김필수, 부감:박미련·백영희, 초등2부 부장:김종구, 지도:정갑신, 부감:한승규·조옥희, 초등3부 부장:송기홍, 지도:윤삼중, 부감:이갑재·정옥남, 초등4부 부장:오태희, 지도:정상기, 부감:양중섭·박종영, 초등5부 부장:최무길, 지도:정창욱, 부감:김춘권·김순실, 초등6부 부장:윤광일, 지

도:장경철, 부감:이동명·이중영, 중등1부 부장:차신득, 지도:김희수, 부감:황영일·오화자, 중등2부 부장:박영식, 지도:안경소, 부감:김영은·유호순, 중등3부 부장:엄필성, 지도:김태준, 부감:김단용·조옥환, 고등부 부장:최성현, 지도:조동원, 부감:임무천·김정자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강은원 장로, 지도:정기봉 목사

대학부 부장:박용삼, 지도:이병각, 부감:정홍식·강순희, 청년1부 부장:박승준, 지도:김찬곤, 부감:박찬섭·백죽심, 청년2부 부장:손경수, 지도:김정우, 부감:황의만·조혜순, 청년3부 부장:최대원, 지도:김해규, 부감:김환기·강동화, 장년1부 부장:정운석, 지도:송태근, 부감:김형선·김석윤, 장년2부 부장:김의철, 지도:신표근, 부감:이하영·우순성, 장년3부 부장:마성락, 지도:이조용, 부감:김인관·유금열, 장년4부 부장:강순용, 지도:정규남, 부감:김여순·이의복, 소망부 부장:김재명, 지도:김양흠, 부지도:김정순, 부감:강봉수·이명자, 새가정부 부장:김재균, 지도:

최인근, 부감:안동현·박효지, 새가족부 부장:오정현, 지도:김용기, 부감:김구형·박영엽, 세례부 부장:강은원, 지도:정기봉, 부지도:현정남, 부감:박인건·민건식

▲제3교육위원회

위원장:조선근 장로, 지도:김성운 목사

사랑부 부장:조선근, 지도:이홍성, 부감:최차용·전현신, 에바다부 부장:조인재, 지도:김성운, 부지도:이준우, 부감:고병국·심효숙, 탁아부 부장:박인세, 지도:최지혜, 부감:최윤덕·민순애, 영어교육부 부장:김천재, 지도:손영준, 부감:이부성·김순, 일어교육부 부장:송환창, 지도:심길용, 부감:주인홍·이해숙, 유아원 부장:박인세, 지도:장혜순, 원감:정지자, 유치원 부장:강순용, 지도:김정자, 원감:민경애, 조기교육원 부장:이종석, 지도:최명자, 원감:이동귀, 경로대학 부장:안익태, 지도:김광국, 부감:채수경·김효정(교사 명단 및 찬양대원 명단은 3면, 4면에 게재)

카메라 쫓점



▲12월 1일 있었던 70인전도대 수료식에서 찬양을 부르는 수료생들

지교회 교역자 초청 간담회 가져

전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오후 5시 전교관 301호에서 지교회 교역자 9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신성종 담임목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복음 전

파의 사명을 다하는 교역자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함께 참석한 전도위원 및 협의회 회장단은 지교회 교역자들의 활동을 전해 들으면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91 제1교구 가족잔치 성황리에 마쳐

"너희가 일심으로"(골1:27)라는 주제 아래 가졌던 제1교구 가족잔치가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만나홀에서 380여 명의 교구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큰 교회이기에 소홀하기 쉬운 황적 교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잠시나마 흐트러졌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모범적이고 성숙된 성도

봉사가 되자고 다짐하였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찬양 및 율동으로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송태근 목사의 "교회"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은 후, 신성종 담임목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교구 일꾼 소개와 특송, 간증 등 순서 순서마다 시종 뜨거운 열기와 풍성함이 넘치는 잔치였으며, 마지막 순서인 합심 기도의 시간에는 교회 부흥과 발전, 수험생

을 위한 특별 기도가 있었다.

12월 행사 계획

◆성탄축하예배

1. 새벽기도회:12월 25일 새벽 5시 30분 분당
 2. 축하예배:12월 25일 오전 9시(교회학교별), 11시(일반 교인) 분당
 3. 축하음악예배:12월 25일 오후 7시 분당
 4. 음악예배:12월 22일 오후 7시 분당(아시아 연주)
- ◆교사 총회 12월 26일 오후 7시 갈릴리홀
◆특별제직회 12월 29일 IV부예배 후 분당
◆원로장로·집사·권사 추대 12월 29일 찬양예배 후 분당
◆장기 근속자 포상 12월 29일 찬양예배 후 분당
◆12월 정기당회 1992년 1월 1일 오후 1시 30분 당회실

제17교구 '91 가족 송년의 밤

성탄과 송년을 앞두고 제17교구는 91년 교구 가족 송년의 밤을 개최합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과 교제, 단합된 의지로 92년 새해를 맞이 위한 준비 절차의 일환입니다.

오셔서 말씀에 은혜받고, 찬양과 율동, 추천권 행사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1991년 12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만나홀

제17교구 교구장 박치민 장로

중현프리즘

◎... 거리의 레코드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케롤이 흘러 나온다. 대형 백화점과 우뚝 선 호텔 빌딩 앞에는 성탄목, 산타클로스, 은색종이, 황홀하리만치 반짝이는 네온사인 등이 우리의 눈을 놀라게 한다.

누가 빗대어 얘기했단가? "아기 예수님은 호텔과 백화점과 카페에서 먼저 오신다"는 얘기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백성들이 성탄의 참뜻도 모른 채, 흥청대고 떠돌고 소리치고 흔들거리고, 거리를 헤매고 있으니...

◎... 어렸을 적 생일이 난다. 눈이 하얗게 쌓인 성탄절날 새벽 공기와 하얀 눈을 사자사각 밟으면서 성도들 가정의 대문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며 찬양하던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

손을 호호 불면서, 눈보리를 맞으며, 호롱불을 켜들고 다니던 그때가 너무나 낭만적(?)이었다.

◎... 이젠 시멘트 벽으로 공간을 채운 아파트와 아스팔트 도로에서 그렇게도 신선한 기쁨이 넘쳤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정경을 현대화와 인간의 교만이 이 모든

것을 앗아간 느낌이다.

◎... 정녕 첫 번 크리스마스는 비록 아기 예수님이 뱃새나는 말구유 탄생이었지만, 동방박사가 귀중한 보배함을 갖고 찾아왔으며, 하늘의 천사가 찬양하는 환희의 그날이었는데... 이 지구촌은 말세의 징조와 함께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손을 들어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못하고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정신병자 같은 환각 상태에서 사탄의 놀음에 질식되어가는 형상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 모두 각성하자.

◎... 본 교회 제25대 장로였다가 70세 정년으로 은퇴한 김동삼 장로가 중현교회 지교회인 서충원중현교회당(민중화전도사 시무) 건립을 위하여 건축비 3천만원을 헌금했다.

이제 순조롭게 건축이 완료되어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헌당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건축 규모는 예배당 50평, 교역자 사택 20평이다.

◎... 중현교회 대변자인 "주간중현"은 필요부수만 인쇄 제작되어니 절약 차원에서 계속 아껴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돌려가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현강단

예수 없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엡2:1~7)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며 어두움 속의 삶인가 하는 것과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행복하며 좋은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예수 없는 삶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

본문에는 “살리셨다”는 말이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없는데, 내용상으로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번역상 문맥이 통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없는 삶이란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이며 영적으로 죽은 삶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인데 이것은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인데 이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이며 지옥에 간다” 혹은 “영원히 죽는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죽었던”이란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거의 죽어간다거나 절망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전혀 없고 완전히 죽었다는 강한 의미를 내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이란 외적인 범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죄란 우리 말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에 허물이란 원죄,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죄를 의미하고, 죄는 우리들의 자범죄, 즉 우리 스스로가 범한 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들이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2:2)

여기서 “그때”란 우리들이 중생하기 이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당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은 죄,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

은 목표에서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또한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않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세상 풍속이 우리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속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바로 사탄마귀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적인 세상과 인류와 죄악의 영향을 받은 세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영향을 받은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 가치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과거를 보면 이것을 좇고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엡2:3)

과거에 우리들은 욕심,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동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환경을 아무리 개선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

“궁홀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엡2:4)

이 구절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그러나 하나님은—”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비록 어둡고 죄악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단어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4절의 상태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하였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주변을 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고대 사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후기 사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2:6)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귀하다, 영광스럽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른 장중에 품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품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에서는 초대를 받았을 때 주인의 부인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귀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2:7)

우리들을 중생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다는 것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선다는 말과 앓는다는 말이 있는데, 선다는 말은 종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앓는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앓아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3. 결론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되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명령하는 대로, 세상 풍속이 시키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좇아다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궁홀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살려주셨으며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펴보면도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있으며, 궁홀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2:4,5)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고 만량중의 사랑을 받았으니 백량중의 용서를 왜 못하겠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셨고”라는 것은 중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는 죄악의 지배를 받았고 세상의 풍속을 좇았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홀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을 중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일들을 볼 때 어두움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홀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비관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장로칼럼

우상숭배
이대로 둘 것인가



정운석 장로
(탁아부 부장)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하철(혹은 전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심기가 불편해진 당국자들이 돼지머리를 상에 바쳐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있다.

죽은 돼지머리가 최첨단의 현대기기를 어떤 방법으로 잘 움직여줄지 한심한 생각이 들고, 신사복을 깔끔하게 차려 입은 지도급 인사가 허리를 구부려 절하는 광경을 보면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사무실을 개소할 때도 고사, 신문사의 윤전기를 돌리기 전에도 고사, 관공서나 공장, 일반 기업체의 입주 모든 의식이 "고사"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적 미신 행태를 이대로만 방치해두어야 할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임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행정관리들은 민족 문화 차원, 전통 문화의 습관을 내세워 공공연히 이런 의식들을 행하고, 이것에 무슨 자랑과 홍보의 의미까지 부여하여 TV 화면에서까지 버젓하게 방영하는 물골을 보면 기분이 잡힌다.

우리 나라에 10년 동안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그냥 침묵으로 참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원한 장래에 어떤 형태의 징계를 가하실런지 우리는 모르지만, 불의를 일삼는 이 백성의 죄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1천2백만명의 믿는 자를 축복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실천하실 때에 패역한 백성에게 저주의 진노가 내려질까 심히 두렵다.

특히 먼저 믿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를 보고도 소리치지 아니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관심으로 동조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적 신앙심, 형제의 아픔을 보고도 스

쳐가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졸렬한 성도가 아닌기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책임의 일단을 감당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 둘 같은 인생들, 죄와 허물인 줄 깨닫지 못하는 악독한 인간들, 자기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 하는 위선자들, 열린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독사의 혀를 가진 이중 인격자들, 이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단자와 동일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개인이 치부하고, 부도덕을 미끼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철면피한 속속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겠다.

심판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징계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신 줄 깨닫고, 가라지의 횡포에 의연한 자세로 인내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삶의 현장과 영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상 숭배 요소를 감시하고, 이를 기도로 차단하며, 예배를 통한 주님의 축복과 형통이 있음을 주지시켜야 하겠다. 이것만이 한국의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다음호 칼럼은 고병욱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김용대, 조승철, 김을필, 조성재, 이창희, 이호식, 이형민, 김권홍, 김인철, 윤희택, 김정희, 박명란, 정경옥, 황운자, 김영실, 고현숙, 이명숙, 오정남, 손유비, 서명숙, 임원애, 김영란, 주복순, 오경애, 조미자, 한희경, 오경숙, 장명자, 임현진, 유현자, 유혜숙, 홍명희, 이정덕, 이정은, 이선희, 최금실, 김미정, 형남선, 이은주, 이창숙, 이성옥

◆유치부

윤창준, 홍성옥, 정두연, 강봉기, 장금출, 최성창, 김은희, 이순옥, 정지선, 이미리, 정금선, 이정옥, 김경성, 오정현, 정은희, 윤선주, 홍순애, 김순이, 강영미, 유혜련, 김예순, 서혜숙, 권혜연, 이늬이, 이애영, 이홍자, 이미영, 유주옥, 김영기, 김두연, 조혜옥, 이해숙, 이태정, 조숙임, 정금자, 장연옥, 김복자, 김정화, 김경옥, 전순희, 김정단, 강영옥, 임난향, 이순복, 김정숙, 이희경, 김수현, 임승진, 김은정, 하미숙, 조추자, 이영자, 김양자, 안광옥, 김성희, 김영미, 이숙현, 노은영, 김영아(1), 김영아(2)

◆초등1부

이상태, 오해설, 선광철, 김영주, 이상일, 김경남, 이진구, 김철남, 홍치순, 강예모, 윤숙희, 하은진, 전길복, 박은주, 김경희, 최하자, 김영화, 임미자, 이은하, 이명자, 오미라, 손경순, 김보옥, 정문지, 이재옥, 박숙희, 김현실, 구태옥, 염혜옥, 이덕심, 김금순, 이영숙, 김숙영, 박경자, 유묘종, 최영옥, 김수진, 김석미, 김영례, 이성옥, 이창숙

1992년도 교회학교 교사 명단

◆초등2부

이승득, 송병렬, 김인태, 김승곤, 김병권, 오경록, 양병진, 이성남, 이수호, 남용승, 김경아, 함미자, 김희숙, 이경숙, 최계순, 김순련, 양영희, 이영희, 장희숙, 김영숙, 송정순, 김귀자, 안수정, 김성희, 박옥자, 이훈식, 박애희, 윤정미, 김금순, 인정옥, 양옥자, 문경숙, 오경혜, 남은희, 신귀옥, 이음진, 마미경, 안강옥, 김형순, 임복례, 장정연

◆초등3부

이실호, 함철주, 김춘택, 이인범, 최현계, 이원영, 오순도, 김성태, 한광조, 김승기, 최원준, 이영식, 황인주, 허재창, 고찬식, 이성직, 임병준, 박명덕, 한병구, 고경중, 신혜진, 이홍선, 마현미, 양승남, 이미화, 정금연, 박현순, 함윤자, 정소원, 이인숙, 선우윤정, 고경숙, 장민화, 이상금, 이천애, 이정림, 이영복, 변경심, 명성희, 이부용, 김제희, 김문정, 김경희, 김여숙, 장운영, 진화자, 김미란, 김신영, 조명자, 서종남, 박현태, 임양주, 박정숙, 김애란, 이성자

◆초등4부

이승계, 송두섭, 박동엽, 박준배, 박영식, 김영암, 홍인수, 김영민, 조영구, 조석재, 정재용, 박만홍, 한정희, 이순석, 이창영, 김동석, 한병수, 설병동, 박정만, 이정현, 오은영, 정경애, 강운재, 오경희, 정윤지, 이영숙, 조순남, 박윤숙, 김미숙, 이동희, 한명자, 한복자, 김유순, 서인경, 최태옥, 이복희, 김순곤, 이인선, 윤정희, 김달자

이영순, 안금자, 김혜정, 홍화숙, 장낙희, 남 회, 최은희, 김명화, 김정민, 신주영, 박정숙, 오영선, 이영자, 송선아, 이승옥, 김형숙, 한성희, 박태정, 이경희, 김애란, 오광순, 김규정, 한성희, 권혜선

◆초등5부

정원근, 조종민, 박태근, 권백용, 양기수, 이계혁, 편무산, 이정림, 전용원, 정영래, 신태홍, 황재현, 권영목, 노지훈, 문효식, 이병두, 이수자, 박양덕, 김재순, 이은희, 유명숙, 신정순, 김미자, 백광희, 김정자, 최영순, 강순자, 신영희, 김승옥, 박병순, 한재신, 정미순, 박희경, 이순애, 정임순, 임광희, 장희숙, 김성자, 박도영, 김선희, 윤영아, 홍주의, 김현미, 김미성, 전화숙, 전성실, 한숙정, 정영자, 정진

◆초등6부

이요섭, 양한원, 조용준, 이홍우, 김명철, 신성훈, 안승현, 윤장원, 김동욱, 김기태, 박종운, 김삼열, 노정화, 송원석, 전은배, 백남재, 지성광, 박창식, 이영민, 권영훈, 김영환, 김재춘, 박광식, 김연근, 남호호, 김황진, 김종홍, 안지홍, 이상조, 김유희, 이애나, 지인숙, 김은영, 주성민, 강은미, 독고정란, 손순자, 이은경, 최종분, 성절요, 이아연, 김경희, 김연옥, 김희경, 김숙희, 강진숙, 이계현, 이지숙, 이정미, 허옥남, 박은숙, 강영희, 장진영, 조추자, 이현순, 황전순, 조준옥, 나음진

◆중등1부

정환봉, 김시주, 이삼연, 김영길,

김철영, 송진국, 이종원, 강태영, 이상복, 김광호, 김인원, 장주석, 설규동, 정연돌, 정필걸, 이진호, 윤종국, 백영기, 정은식, 김영수, 김강운, 정운성, 김종홍, 나한선, 김선희, 변영민, 김선자, 문미령, 정경희, 허옥분, 전화숙, 김정열, 고창자, 조옥자, 이소규, 이은희, 박형주, 이경옥, 김명희, 김복희, 백영기, 김강운, 김연식, 정은희, 성명선, 최순혜

◆중등2부

장석두, 김한원, 김창국, 이종훈, 김창권, 김기철, 김일생, 조성수, 백 종, 이성섭, 손종문, 최진성, 황낙효, 홍경호, 김빈호, 오용민, 양순옥, 전준희, 한옥화, 마리나, 김성주, 노정숙, 홍정호, 김영자, 정정순, 허경화, 김윤정, 성명현, 서은숙, 조혜숙, 송진경, 이부용, 변평수

◆중등3부

박용기, 이동성, 김필래, 이영환, 정세형, 이상복, 전명상, 김성수, 이종환, 손종원, 이인광, 최경하, 신민석, 김태홍, 이정진, 이해철, 이무열, 김태진, 이만영, 김용훈, 이성재, 고승관, 류동호, 강은태, 이득태, 고은빈, 이승순, 동지현, 노혜경, 구자남, 홍정화, 백소현, 장신자, 이창애, 박수진, 이금효, 박양자, 김영수, 김은숙, 김진미, 유재순, 이문표, 배은경

◆고등부

배한용, 김동열, 박원영, 배춘식, 구재환, 문운수, 정재모, 강철영, 김영달, 한경수, 신재성, 한재용,

김희재, 김남식, 김교동, 성준경, 신주홍, 김승배, 권혁진, 송석근, 문경안, 원영진, 윤석민, 김창동, 송인섭, 이광우, 김민철, 임복삼, 이진목, 홍원석, 이지한, 김용도, 권갑준, 김병주, 김명숙, 박준원, 정정자, 김복순, 이희표, 김용숙, 이홍숙, 오순희, 김경미, 윤송죽, 성명희

◆대학부

이형수, 노영환, 안석현, 유국현, 김종권, 안세현, 정재영, 김재호, 이준석, 김승태, 박병기, 김낙중, 이진원, 김동관, 조남선, 안용현, 김재경, 표성배, 정재용, 김택은, 고경훈, 김인철, 조남숙, 유순원, 이현주, 오경진, 허준원, 김선희, 이성애, 이윤복

◆청년1부

이관규, 박종옥, 이대길, 이기성, 이신동, 이영복, 임기재, 이정관, 최 순, 김옥희, 신재금, 이미재, 장남희, 정희공, 손병희, 안경애, 송연자, 김정선

◆청년2부

문일규, 전승훈, 남정애

◆청년3부

정태두, 정철환, 장홍석, 박도운, 이정애

◆장년1부

박덕양, 윤래균, 권영학, 한민수, 백운홍, 김인수, 이종석, 박상철, 주영호, 김광근, 염낙서, 박규원, 나승은, 한영자, 박정례, 한광자, 최현숙, 채명태, 허태균, 김영희, 이애자, 임경순, 석귀수, 윤병연, 이영수, 조숙진, 강철래, 김영선, 임대여(다음호에 계속)

◆가브리엘찬양대

대장:이종석 지휘:최광덕 부대장:

이종섭 반주:채은실 서기:최동규

소프라노:홍풍작, 방희정, 석정자, 안옥자, 최경숙, 정길자, 정부희, 김명숙, 서미라, 박현원, 김승희, 지숙자, 박은선, 안종숙, 이미연, 김경숙, 홍명희, 강영희, 안명희, 안현희, 피순복, 김선희, 이현주, 안윤희, 송연자, 임정숙, 송문영, 강민영, 김현자, 허옥분, 안춘진, 이정미, 김은양, 김미자, 정수경, 최희승, 김정영, 서정경, 이정숙, 김윤옥, 김재미, 정희경, 이순호, 이은희, 송세진

엘 토:김영은, 홍명순, 한수미, 김옥림, 최영희, 이설희, 연화숙, 노순옥, 서정옥, 강윤재, 박영진, 이희경, 홍원희, 이지연, 권수정, 이경화, 임광희, 손소영, 광기영, 이연화, 김은숙, 홍성실, 이은경, 장춘매, 김혜영, 김은아, 강석주, 박명희, 오영숙

테 너:최동규, 권석태, 김영달, 이종석, 임창식, 조성수, 유형식, 박상현, 정광택, 박준성, 이진수, 이정엽, 이영준, 김승겸, 이시형, 김종대, 최승민, 윤석민, 진경문, 최영철, 이광열

베이스:정래부, 이종섭, 김낙홍, 정선현, 장영수, 구자승, 이윤복, 정종현, 황진경, 강창근, 권병철, 이계인, 정연택, 이창우, 손 철, 안명준, 장상원, 김홍배, 전일훈, 윤영석, 박종신, 김대식

◆임마누엘찬양대

대장:이창호 지휘:조신욱 부대장:

정상수 반주:김윤경 서기:이진원

소프라노:공수진, 김예숙, 김경희, 김혜영, 김희숙, 박선아, 박정수, 김혜영, 손예숙, 송미주, 송선아, 신승현, 신원희, 신주영, 유혜연, 윤남순, 윤미영, 윤현선, 윤현하, 이오복, 이수경, 이신남, 이은옥, 이연실, 이현진, 임남희, 왕원희, 장혜진, 전소영, 조성희, 최정원, 한선형, 홍자희, 홍지나, 황순란, 임선하, 윤상희, 홍성희, 이미리, 손민아, 조현숙, 김명희, 김일화, 하은주, 양시원, 최금란, 김혜경, 문영미, 한연수, 최착한, 정은숙, 김은미, 함유선, 이주은, 서혜정, 정효숙, 박화성, 이명숙, 박성희, 박지연, 추명희, 선경희, 심성은, 김옥희, 박은주, 장명순

엘 토:강수정, 김선영, 김보경, 김영임, 김은주, 김지향, 김윤희, 김혜영, 김향신, 김현정, 박혜정, 박선미, 손근영, 송영관, 송윤경, 안은애, 안경화, 양혜란, 오자경, 유인애, 이명하, 이애숙, 장연희, 전지현, 지의미, 전진실, 최정현, 추수미, 한지연, 하진희, 김자영, 김지웅, 김미경, 박선희, 정윤희, 왕지윤, 정지현, 노효영, 이현정,

1992년도 찬양대원 명단

김미경, 류명희, 하은실, 성기원, 서현선, 정지연, 장수진, 이필호, 이윤경, 이 진, 정재균, 조해정, 이혜진, 이시현, 안희준, 이은정(1), 이은정(2)

테 너:김봉균, 김진수, 김정호, 김상권, 박진희, 성기운, 신현식, 양찬호, 엄찬용, 염은식, 이병택, 이종현, 전이배, 정상수, 정영덕, 정재준, 조인성, 조시배, 송은석, 홍성민, 송준엽, 김국찬, 고인성, 신상윤, 이석재, 정성우, 최승순, 김태준, 김훈상, 장대선, 조영호, 박경환, 김혜언, 김훈식, 오정성, 이동우, 이수형, 이재욱, 이재웅, 이정구, 이종상, 이형준, 정규호, 정철영, 오경철, 김영익, 김윤성, 오재걸, 이정환, 이진원, 최만호, 김수정, 정상원

◆할렐루야찬양대

대장:이 훈 지휘:김영준 부대장:이

인영 반주:김신영 서기:윤주현

소프라노:김옥순, 김인숙, 김종희, 김계순, 권현숙, 고진순, 나미용, 문인순, 박수경, 백광자, 박명신, 서영남, 이경희, 이은혜, 오윤숙, 유기림, 이혜숙, 임종숙, 유명자, 유경아, 유은희, 오희승, 임현정, 송선옥, 정은숙, 전성자, 정성자, 최영선, 최수희, 이순희, 허정애, 박정운, 최희용, 김광연, 김은경, 임순록, 손양옥, 표복자, 김송자, 오명자, 이민숙, 손영희, 황경희, 정은주, 이여경, 임수연, 이상실

엘 토:김옥희, 강정희, 김성희, 강소영, 김은주, 김경애, 김종녀, 김세희, 나순희, 방남희, 박경연, 민병숙, 금호순, 이경숙, 유성희, 이미심, 이순성, 이연순, 이정자, 오계순, 이복순, 유정은, 윤미경, 정미애, 장선복, 김은경, 정상순, 정은혜, 차봉순, 최수경, 최인상, 하순영, 황은순, 홍의숙, 황광옥, 한숙정, 방지영, 신명주, 오을순, 김양희, 지혜경, 전은실, 오세은, 전화숙, 정현애, 서양숙

테 너:김길선, 김희원, 김수진, 김정조, 김영효, 이 준, 임연수, 정성교, 최동훈, 최원일, 박택규, 윤주현, 최대원, 안신옥, 주영은

베이스:김태호, 김병수, 김재범, 김종식, 김창호, 김태전, 김현식, 김영희, 권영주, 구창희, 이형수, 이정근, 이준식, 임성택, 손정익, 박진완, 정용환, 전인걸, 신현호, 최정희, 정위식, 이동우, 이은희, 박창석, 이재보, 이윤석, 천종희, 정성현, 이명국, 이병두, 김장길, 박성명, 박우영

◆아멘찬양대

대장:윤성철 지휘:이관섭 부대장:

전홍렬 반주:백금옥

소프라노:김경자, 김국영, 김미성, 김미자, 김영숙, 김성자, 김성록, 김혜경, 김영민, 박경애, 박혜준, 백순자, 서화자, 양선자, 원용숙, 왕인숙, 유정자, 이규숙, 이규임, 이복희, 이영순, 이현숙, 장옥순, 장순희, 정정숙, 정옥영, 조지은, 조유자, 최종분, 최경순, 최예순, 한 복, 현계식, 홍승순, 이경래, 최영실, 정연옥, 임학신, 홍현희, 김성옥, 김영옥(1), 홍계은, 우영희, 김영옥(2), 김명숙, 정명숙, 이복희

엘 토:임선애, 전경자, 김신자, 민병란, 김정순, 박미정, 전유강, 채영애, 백숙자, 김정순, 김순은, 김미애, 김귀자, 한애현, 엄정자, 강명옥, 정숙자, 최수자, 박정숙, 임영신, 윤정미, 이삼옥, 이명자, 김영기, 김아진, 방소애, 변정자, 박선미, 여현진, 장순태, 이경희

테 너:윤성철, 조규호, 김영춘, 장상길, 김철환, 유현동, 이봉주, 경기천, 송영상, 최광선

베이스:김경환, 김신국, 김인술, 김정호, 임낙준, 전홍렬, 조필근, 조형수, 최영창, 한윤석, 박병선, 김대일, 이평희, 정세용, 서형식, 전정구, 전종익, 박근석, 홍이표, 최창준, 공병식, 석영식, 최종성, 홍영표

◆호신나찬양대

대장:최봉숙 지휘:송숙자 부대장:

현계식 반주:김은백 서기:이명자

소프라노:변순복, 김복임, 안정희, 김성자, 정경자, 윤여전, 김동래, 현계식, 신일순, 김연수, 양선자, 이명자, 광영자, 유정자, 최경순, 박경자, 박인자, 서영남, 방희정, 김예순, 남순희, 윤미숙, 서화자, 김옥순, 김미자, 유효순, 김재숙, 전춘옥, 남경자, 백경옥, 한숙원, 강동화, 전성실, 이규숙, 이정애, 최숙경, 이주형, 남영자, 김영숙, 양선자, 김성금, 허인순, 정은숙, 김옥기, 신영자, 반연숙, 이영순, 심인주, 김혜정, 김성옥, 손성옥, 김은영

메조 소프라노:변성옥, 정은순, 김순은, 최봉숙, 염숙현, 백숙자, 임선애, 민병란, 김옥남, 문선옥, 박순옥, 노정자, 설복연, 김순동, 장희수, 조은신, 김경숙, 황순주, 박명엽, 김희순, 고윤희, 현경남, 도성희, 문경희, 전행자, 김지현, 이자경, 손홍숙

엘 토:유금렬, 정민자, 변정자, 안소현, 김춘지, 이수자, 방남희, 신정순, 전신덕, 안정자, 장정훈, 임영숙, 구영희, 한정숙, 이영희, 김성도, 백영자, 이영영, 김순애,

황치희, 양영숙, 김수자, 노정숙, 남수현, 이정윤, 이해영, 안상숙, 황정희, 김영자

◆실로암찬양대

대장:이병학 부대장:박성명 반주:

임효선 서기:김형곤

소프라노:백희정, 권현숙, 김희숙, 이명숙, 김혜정, 윤혜실, 정옥영, 이복희, 정은희, 권미숙, 이정애, 최영희, 김신영, 이미리, 김경희, 오은영, 양란정, 박경희, 우승희, 노경숙, 이승희, 권정완, 정희경, 이영수

엘 토:이명자, 장춘매, 라영실, 이경숙, 이숙희, 박은경, 양영경, 김경성, 김미영, 김경아, 하순영, 강정희, 최영애, 김선영, 박임순, 조연숙, 고경아, 광도운

테 너:정인선, 이정환, 정철영, 이동우, 이재욱, 박찬희, 이종혁

베이스:이병학, 이 훈, 박성명, 김형곤, 전정구, 정영덕, 안희정, 김창호, 전이배, 박기범

◆시온찬양대

대장:김천채 지휘:이수철 부대장:

이정우 반주:조희영

소프라노:백희숙, 이강옥, 조증선, 송양린, 이복희, 김복순, 조현주, 김은규, 김경아, 김선규, 정혜영, 박찬미

엘 토:문창숙, 김은주, 송유진, 김미정, 정성도, 정명실, 나정연, 최윤미, 김순규, 김민정, 박선희, 오선희

테 너:정인선, 채홍표, 최도준, 윤성기, 김윤식, 김준규, 김천채

베이스:손건국, 허광만, 박수현, 이동준, 김기우, 이정우, 김상규, 여인영, 박형근, 염현일, 김정형

◆베들레헴찬양대

대장:송환창 지휘:정경자 부대장:

서기:김신국 반주:김지향

소프라노:안춘자, 엄선자, 이형순, 심용자, 송미경, 성미선, 이정은, 현계식, 변순복, 이영옥

엘 토:박월희, 김순은, 김광혜, 정숙자, 양선자, 박경자, 김윤옥, 김경숙, 한영숙, 이성희, 양승자, 변정자

테 너:임택일, 송영상, 송한천, 박홍주

베이스:김신국, 김대웅, 박용호, 김수영, 최승철, 김인술, 박근석, 박병선, 송환창, 최종순, 하대옥, 황명환

◆랜드벨리아

대장:정경자 지휘:민매라 부대장:

이명숙

가브리엘:강은정, 홍미정, 김문정,

정성현, 유현정, 임희연, 김서영, 이우경, 권은아, 양지영, 송정근, 정소윤, 손에스더

미가엘:윤혜선, 이보람, 정혜라, 윤경미, 최은정, 임정연, 한현정, 윤성혜, 박소현, 강대영, 봉수연, 권신희, 김미리, 안은미, 박권철, 정혜미, 김성연

신입대원:김광미, 봉혜련, 오지혜, 신혜령, 김유경, 손신애, 김숙영, 이태호, 김익준, 박은기, 한종웅

◆오케스트라

대장:이 훈 부지휘:남궁조 부대장:

이인영 서기:최호일

바이올린:류예행(악장), 최영옥, 박성하, 장연희, 유주현, 김유정, 구희진, 박민숙, 유지연, 이해진

첼로:이경림, 최정아

플루트:남궁조, 노은영, 홍진숙, 고도인

클라리넷:최호일, 김화진

혼:노승희, 김상용

트럼펫:허윤영, 임정미

비올라:김성희

콘트라베이스:정선채

오보에:박미선

비슨:이대원

트럼본:최원희

팀파니:신선아

◆크로마하프연주단

대장:한영숙 지휘:이정현 부대장:

이정자 서기:이연순

대 원:강신숙, 강신순, 고윤희, 광영자, 김국자, 김부영, 김숙자, 김영옥, 김영란, 김옥순, 김영화, 박희숙, 신귀옥, 신주영, 우영희, 이형순, 안춘자, 이경표, 이성숙, 전옥순, 정영래, 최영이, 이명옥, 최수자, 이민숙, 정정자, 한영숙, 김경순, 이경호, 성지현, 이연순, 이정자, 이인선, 이영희, 이미란, 최귀훈, 최원희, 김영숙, 이영순, 이영화, 이경래, 최종란, 오광순, 김희영, 연정아, 마정화, 신영희, 이춘희, 심옥섭, 박경희(1), 박경희(2)

◆만도린연주단

대장:최정옥 지휘:이정현 부대장:

홍명순 서기:양승자

대 원:한영숙, 유재욱, 양승자, 이성희, 오말녀, 이상금, 전경금, 윤춘심, 권명희, 이연순, 이영순, 이국표, 인정옥, 신인순, 김미자, 광영자, 손미영, 김영란, 김경숙, 이정현, 최정옥, 방연옥, 한수미, 반연숙, 정찬실, 홍명순, 김신자, 방소애, 정명실, 최향월, 유선애, 김옥남, 이순애, 백숙자

•바로잡음•

제141호(1991년 12월 1일자)
1면 기사 중 제12교구장은 김재명 장로가 아니고, 이창호 장로로 바로 잡습니다.